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김선재¹ · 김성균² · 노관태³ · 안수진⁴ · 백상현⁵ · 김지환⁶ · 유동기⁷ · 김경록¹ · 권공록^{3*}

¹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치과보철과, ²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³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⁴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생체재료 보철과, ⁵에스플란트치과병원, ⁶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⁷유동기 치과의원

Denture wearers' recognition for their oral health status, denture cleansing methods, and insurance health system

Sunjai Kim¹, Seong-Kyun Kim², Kwantae Noh³, Su-Jin Ahn⁴, Sang-Hyun Baik⁵, Jee-Hwan Kim⁶, Dong-Ki Yoo⁷, Kyoung-Rok Kim¹, Kung-Rock Kwon^{3*}

¹Department of Prosthodontics, Gangnam Severance Dental Hospital,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²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³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⁴Department of Biomaterials & Prosthodontics,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at Gangdong, Seoul, Republic of Korea

⁵S-Plant Dental Hospital, Seoul, Republic of Korea

⁶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⁷Yoo's Dental Clinic,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aim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understand the incidence, prevalence of denture stomatitis in denture wearers, who were over 60 years old, and use the results for a fundamental data to promote public awareness about denture stomatitis and its education tools. **Materials and methods:** From August 21 to September 8 2017, 500 denture wearers, who were more than 60 years old in Seoul and 4 other metropolitan cities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receiv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denture wearers' demographic distributions, specific dental treatment experiences, discomforts with current dentures, their oral health conditions, and the method of denture cleansing. **Results:** Thirty-two percent of 500 denture wearers responded that they have healthy oral conditions. Two hundred and eight respondents (41.6%) were aware of denture stomatitis. Only 131 (26.2%) were informed about the removable dentur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327 (65.4%) of denture wearers were using the improper denture cleansing methods. **Conclusion:** A large number of denture wearers still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per treatment for denture stomatitis, insurance covered denture treatments, and adequate denture cleansing method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8;56:287-94)

Keywords: Denture wearers; Oral health; Denture stomatitis; Insurance covered denture treatment

서론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단계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5.6%)으로 현재의 약 3배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¹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82 (0)2 958 9340; e-mail, krkwon@khu.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October 15, 2018 / Last Revision October 17, 2018 / Accepted October 19, 2018

©2018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and GlaxoSmithKline (GSK).

길어진 수명으로 노인들은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을 노년기로 생을 보내게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단순히 수명의 연장의 시간이 아닌 만족스러운 삶의 영위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은 사회적인 유대관계유지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 향상을 위한 활동 및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데, 노인에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건강 문제이다.² 구강 건강은 섭식과 관련되어 전신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³ 노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결손치의 증가는 섭식장애를 야기하여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5} 가철성 의치는 노인의 저작 기능 및 심미적 욕구 충족 등 치아 기능을 보완하여 전신 건강상태를 유지 및 향상 시켜 노인들의 행복과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⁶⁻⁸

무치악부를 보철적으로 수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흔히 틀니라고 불리는 의치가 이용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틀니를 포함한 보철치료를 받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⁹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의 틀니 건강보험적용을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보험의치혜택을 받았으며, 노인의 구강 건강 회복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¹⁰ 국내 의치사용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의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11월부터 보험의치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시행하여 의치 사용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치 급여화정책으로 인해 의치사용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의치의 유지 및 관리 상태와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국민구강보건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한치과보철학회 주도로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총 500명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전문 리서치기관(MACROMILL EMBRAIN, Seoul, Korea)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리서치기관의 연구원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연구내용에 관해 완전히 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1), 조사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Table 1. Questionnaires

Dimension	Question
Subject's characteristics	What is your gender?
	How old are you?
	Where do you live?
	What is your job?
	How much do you earn?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have?
	Do you smoke?
	Do you drink?
Denture use status	How long have you been wearing a denture?
	How much did you wear your current denture?
	What kind of dentures are currently in use and what are their parts?
	What is the material of the complete denture?
	How long does it take to wear a denture during a day?
	What are the inconveniences of wearing a denture?
	What is your current oral condition?
	Do you know the denture stomatitis?
	Have you experienced denture stomatitis?
	How many times have you experienced denture stomatitis?
Oral health status and denture stomatitis	Where did the denture stomatitis occur?
	What are the inconveniences of denture stomatitis?
	What is the solution of denture stomatitis?
	Do you visit the dentist regularly?
	How regularly do you visit the dentist?
	Have you ever been educated in denture stomatitis at a medical facility?
	What is your overall health?
	Do you know about the denture insurance system?
Denture management	How often do you clean your dentures?
	How do you clean your dentures?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denture cleaning method?
	Do you use denture cleanser?
	How often do you use denture cleanser?
	Do you use a denture adhesive?
How do you keep your dentures at bedtime?	

2010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해 정리하였다.

결과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연구대상자를 성별과 인구 구성비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성별은 남성 230명(46%), 여성 270명(54%)이었고, 인구 구성비에 따라 서울이 260명(52.0%)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07명(21.4%), 대구 65명(13.0%), 대전 35명(7.0%), 광주 33명(6.6%) 순서였다.

Table 2.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	%
Gender	Male	230	46.0
	Female	270	54.0
Age (years)	60 - 64	463	32.6
	65 - 69	127	25.4
	70 - 74	102	20.4
	75 +	108	21.6
	Region	Seoul	260
	Busan	107	21.4
	Daegu	65	13.0
	Daejeon	35	7.0
	Gwangju	33	6.6
Occupation	Self-employed	187	37.4
	Employer	41	8.2
	Housewife	163	32.6
	Unemployed/Retired	109	21.8
Income (10,000 won)	- 199	172	34.4
	200 - 299	139	27.8
	300 - 399	95	19.0
	400 +	94	18.8
Family members	1	67	13.4
	2	312	62.4
	3	83	16.6
	4	30	6.0
	5 +	8	1.6
	Smoke	Often	62
Occasionally		26	5.2
Used to, not now		100	20.0
Non-smoker		312	62.4
Drink	Often	45	9.0
	Occasionally	171	34.2
	Used to, not now	88	17.6
	Non-smoker	196	39.2

연구대상 의치사용자의 의치 총 사용 기간은 평균 5.7년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66.6%(333명)가 현재 사용 중인 의치의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3명(20.6%), 10 - 20년은 54명(10.8%), 20년 이상은 10명(2.0%) 이었다. 의치성 구내염 경험여부는 현재 사용 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Table 3). 하루 중 의치를 사용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사용(평균 16 - 17시간 이상)한다는 응답자가 260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치 사용시 불편 사항으로는 ‘음식물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자주 낀’이란 응답자가 108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씹는 힘이 약해져 음식 섭취가 불편함’ 58명(11.6%), ‘틀니 때문에 잇몸이 불편함’ 49명(9.8%) 순이었다 (Table 4).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경우 의치사용자는 ‘입 냄새’ 21.6%, ‘입안 건조’ 18.8%, ‘이/잇몸 시림’ 16.8%, ‘입 속 염증 발생’ 11.2% 등의 증상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208명(41.6%)이 의치성 구내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147명(29.4%)은 의치성 구내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262명(52.4%)으로 절반 정도였으나, 치과에서 의치성 구내염에 관련한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은 84명(16.8%)에 불과하였다 (Table 5).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 26.2%(131명)만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3.8% (Table 6)에서는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60 - 65세에서 34.4%, 65 - 69세에서 27.6%, 70 - 74세에서 19.6%, 75세 이상에서 18.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Table 3. Period of denture wearing (%)

Period	Total		Gender		Age				Experience of denture stomatitis	
	N	500	M	F	60 - 64	65 - 69	70 - 74	75 ≤	Yes	No
Total period	< 1 y	4.2	3.9	4.4	6.7	3.9	2.0	2.8	2.0	5.1
	1 - 3 y	32.4	34.3	30.7	52.8	34.6	17.6	13.0	27.9	34.3
	3 - 5 y	22.2	21.7	22.6	23.3	23.6	28.4	13.0	21.1	22.7
	5 - 7 y	13.4	15.2	11.9	9.8	16.5	13.7	14.8	10.9	14.4
	7 - 10 y	5.2	4.3	5.9	1.2	4.7	5.9	11.1	5.4	5.1
	10 - 20 y	16.8	14.8	18.5	4.3	14.2	27.5	28.7	25.9	13.0
	20 y <	5.8	5.7	5.9	1.8	2.4	4.9	16.7	6.8	5.4
	mean	5.70	5.39	5.96	3.07	4.66	6.95	9.70	6.73	5.27
	< 5 y	66.6	67.8	65.6	85.9	73.2	54.9	40.7	58.5	70.0
Current period	5 - 10 y	20.6	21.7	19.6	11.0	18.1	26.5	32.4	23.1	19.5
	10 - 20 y	10.8	9.1	12.2	2.5	7.9	16.7	21.3	15.6	8.8
	20 y <	2.0	1.3	2.6	0.6	0.8	2.0	5.6	2.7	1.7

Table 4. Inconvenience when using the removable denture (%)

Inconvenience	Total	Gender		Age				Total period of denture wearing (year)				Experience of denture stomatitis	
		M	F	60 - 64	65 - 69	70 - 74	75 ≤	< 3	3 - 5	5 - 10	10 <	Yes	No
		500	230	270	163	127	102	108	183	111	93	113	147
Food impaction under denture	21.6	23.0	20.4	23.3	18.1	21.6	23.1	26.2	20.7	25.8	11.5	19.0	22.7
Weak chewing force	11.6	10.9	12.2	11.0	13.4	10.8	11.1	12.0	12.6	8.6	12.4	16.3	9.6
Gingiva discomfort	9.8	9.1	10.4	8.6	7.9	13.7	10.2	8.2	8.1	14.0	10.6	19.0	5.9
Pain	8.4	8.7	8.1	7.4	7.9	7.8	11.1	9.3	9.0	5.4	8.8	15.6	5.4
False odor	8.4	8.3	8.5	8.6	8.7	7.8	8.3	8.2	9.9	9.7	6.2	7.5	8.8
Decreased retention	4.6	4.3	4.8	3.7	3.9	2.0	9.3	1.6	3.6	2.2	12.4	5.4	4.2
Stained denture	2.0	3.5	0.7	3.7	2.4	-	0.9	2.7	0.9	3.2	0.9	0.7	2.5
Denture movement	1.8	1.7	1.9	1.8	2.4	2.0	0.9	1.1	1.8	2.2	2.7	2.0	1.7
Wound by denture	1.8	1.3	2.2	1.2	2.4	2.9	0.9	1.1	1.8	1.1	3.5	6.1	-
Unfavorable appearance	1.8	2.2	1.5	2.5	2.4	-	1.9	1.6	1.8	2.2	1.8	1.4	2.0
Incorrect pronunciation	1.6	1.3	1.9	1.2	0.8	2.0	2.8	0.5	0.9	-	5.3	2.7	1.1
Frequent looseness	1.4	2.2	0.7	0.6	1.6	2.0	1.9	0.5	1.8	1.1	2.7	2.7	0.8
Clattering sound	0.4	-	0.7	-	-	-	1.9	-	-	2.2	-	-	0.6
None	24.8	23.5	25.9	26.4	28.3	27.5	15.7	26.8	27.0	22.6	21.2	1.4	34.6

Table 5. Denture stomatitis: Recognition, experience, no. of experience, education (%)

		Total	Age				Total period of denture wearing (year)				Denture cleaning			Regular visit	
			60 - 64	65 - 69	70 - 74	75 ≤	< 3	3 - 5	5 - 10	10 <	3	2	≤ 1	Yes	No
			500	163	127	102	108	183	111	93	113	140	233	127	262
Recognition (500)	Yes	41.6	47.9	40.2	43.1	32.4	40.4	43.2	39.8	43.4	47.9	45.1	28.3	50.0	32.4
	No	58.4	52.1	59.8	56.9	67.6	59.6	56.8	60.2	56.6	52.1	54.9	71.7	50.0	67.6
Experience (500)	Yes	29.4	30.7	22.0	34.3	31.5	24.0	27.9	25.8	42.5	30.0	30.5	26.8	41.8	16.4
	No	70.6	69.3	78.0	65.7	68.5	46.0	72.1	74.2	57.5	70.0	69.5	73.2	58.8	83.6
No. of experience (147)	Always	6.8	8.0	-	11.4	5.9	4.5	3.2	8.3	10.4	88.1	77.5	91.2	7.4	5.1
	ST/month	9.5	8.0	10.7	8.6	11.8	6.8	6.5	20.8	8.3	7.1	15.5	-	8.3	12.8
	ST/year	83.7	84.0	89.3	80.0	82.4	88.6	90.3	70.8	81.3	4.8	7.0	8.8	84.3	82.1
Education (500)	Yes	16.8	16.0	17.3	19.6	14.8	21.3	17.1	12.9	12.4	17.1	18.0	14.2	26.3	6.3
	No	83.2	84.0	82.7	80.4	85.2	78.7	82.9	87.1	87.6	82.9	82.0	85.8	73.7	93.7

ST: Sometimes

Table 6. Recognition about denture health insurance (%)

			Age				Regular visit	
			60 - 64	65 - 69	70 - 74	75 ≤	Yes	No
			163	127	102	108	262	238
Recognition (500)	Yes	26.2	34.4	27.6	19.6	18.5	24.0	28.6
	No	73.8	65.6	72.4	80.4	81.5	76.0	71.4
Cognitive contents* (131)	Once in lifetime	42.7	35.7	45.7	45.0	55.0	41.3	44.1
	Once every few years as needed	36.6	46.4	34.3	35.0	15.0	39.7	33.8
	All treatments related to dentures included in insurance	20.6	14.3	28.6	20.0	25.0	9.5	30.9
	All treatments received during the first year after treatment included in insurance	19.1	23.2	17.1	25.0	5.0	19.0	19.1
	Surveyed crown not included in insurance	14.5	16.1	17.1	15.0	5.0	15.9	13.2

* Allow duplicate responses

Table 7. Denture cleansing methods used

		Total	Recognition of right and wrong		
			Right	Wrong	Do not know
		500	354	5	141
No. of cleaning (500)	3	28.0	76.4	0.7	22.9
	2	46.6	66.1	-	33.9
	≤ 1	25.4	73.2	-	23.6
Cleaning method (500)	Toothpaste & brushing	33.6	69.6	0.6	29.8
	Flowing water	24.8	66.1	1.6	32.3
	Immerse in cleaner overnight	17.2	75.6	-	24.4
	Immerse in cleaner, then in water	15.6	83.3	2.6	14.1
	Kitchen detergent	4.6	78.3	-	21.7
Cleaner use (500)	Salt water	3.8	31.6	-	68.4
	Immerse in water	0.4	50.0	-	50.0
	Yes	49.4	78.1	0.8	21.1
	No	50.6	63.6	1.2	35.2
Regular visit (500)	Yes	52.4	62.6	0.8	36.6
	No	47.6	79.8	1.3	18.9

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치과 정기 검진자에서 76.0%, 비정기 검진자에서 71.4%가 처음 듣는다고 답하여 치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의치 관리 현황으로는 의치사용자 중 233명(46.6%)이 의치를 하루에 2번 정도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 세척 방법으로는 ‘양치하듯이 치약으로 틀니를 닦는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흐르는 찬물에 행군다.’가 24.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4%에서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정제 사용자의 31.6%는 매일 한번 이상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 부착제는 전체 90.2%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Table 7).

고찰

노령 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특히,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근래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구강 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치아 상실로 인한 섭식의 어려움인데,¹¹ 이는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³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무치악 혹은 부분무치악 노인들의 치아 상실부 수복을 위한 의치의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 많은 노인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발표한 노인 가구평균 월 소득은 177만 1,400원¹²으로 노인 인구의 약 4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¹³ 2017년 11월부터 급여의치의 본

인부담금 인하 적용으로 과거 비급여 의치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의치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노인들의 의치 치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질 저 의치 사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 중 58.8%는 의치를 사용한 총 기간이 5년 미만이고,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경우 사용기간은 5년 미만이 66.6%로 나타났다. 이는 의치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된 2012년 이후 의치를 새로 제작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0%의 의치사용자들은 아침식사 시부터 저녁식사 후까지 의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75.2% 의치사용자들은 의치 사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많은 수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하지만 저작 기능 및 사회생활을 위한 심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의 41.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구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32.2%의 의치사용자는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인지가 32.3%로 전체 대상자의 인지율보다 낮았고, 의치성 구내염 관련 증상인 입 냄새가 나거나(53.7%), 입속에 염증이 자주/종종 발생(66.1%)하거나, 잇몸 통증(58.3%)을 호소하는 의치사용자들은 전체보다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높은 인지율을 보여줬다. 이러한 인지율과 더불어 의치성 구내염은 전체의 29.4%의 의치사용자들이 경험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의 의치 총 사용기간을 가진 의치사용자에서 42.5%로 높게 나타났다. 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치성 구내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용자는 적었으며, 특히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호소하는 212명 중 의치성 구내염을 인지하는 사용자

는 123명(58%)로 질환에 따른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나 자신이 어떠한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또한,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한 환자들은 여러 차례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의치성 구내염 증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 ‘치과 방문’을 하는 틀니 사용자가 68명(46.3%)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의치성 구내염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더라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정도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의치사용자는 262명(52.4%)이었으며, 의치성 구내염 경험군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비율이 73.5%로 약간 높았다. 치과 검진 빈도는 1년에 1번 정도 치과 검진을 받는 경우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16.8%(84명)만이 안내 또는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의치성 구내염 경험군에서도 의치성 구내염에 대한 안내나 교육 경험은 28.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치사용자들에게 의치성 구내염에 관한 안내 또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치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만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6.2%에서만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인지는 낮았고, 의치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의치사용자들조차도 ‘평생에 한 번 보험으로 의치치료 가능’, ‘필요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의치를 재 제작 가능’ 등 부정확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당시 의치건강보험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조사한 연구¹⁴에서 보여준 의치건강보험급여화 인식률 61.7%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지경로를 주로 치과의원과 방송매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조사에서 치과 정기 검진자 중 76.0%가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다.’라고 응답하여, 과거 의치건강보험제도 시행 당시에 계획하였던 교육 및 홍보 과정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의치보험에 대한 환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그대로 치과계 종사자의 몫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치건강보험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의치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의치 관리 현황은 ‘하루에 2번 정도 틀니를 닦는다.’가 46.6%, ‘하루 3번 식사 후 늘 닦는다.’가 28.0%로 나타났다. 의치 세척 방법으로는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39.4%로 많은 수의 의치사용자가 제대로 된 세척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치 세정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65.4%로 잘못된 세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올바르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치를 세척,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틀니를 새로 장착하는 당시 뿐 아니라, 정기

검진 때에도 틀니 세정제 사용 및 올바른 세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농촌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구강건강, 의치건강보험, 올바른 의치 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치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치에 대한 노인의 접근은 더 용이해졌으나, 노인들의 구강건강, 의치건강보험, 올바른 의치 관리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치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의치건강보험 및 올바른 의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의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 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 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 의치사용자의 의치 총 사용 기간은 평균 5.7년이며, 의치성 구내염 경험은 현재 사용중인 의치의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75.2%에서 불편감을 느끼면서 의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연구대상 의치사용자는 많은 수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의치성 구내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용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 증상 발생 시 해결 방법으로 ‘치과 방문’을 하는 의치사용자는 의치성 구내염 경험자의 46.3%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역시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의치성 구내염 관련 안내나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16.8%만이 안내 또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3.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전체의 26.2%에서만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 의치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의치사용자들도 부정확한 내용으로 보험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치 관리는 ‘하루 2번 이상 틀니를 닦는다.’가 74.6%로 높게 나타났으나, 의치세정제를 사용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세정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60.6%로 많은 수의 의치사용자가 제대로 된 세척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잘못된 방법을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65.4%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과의사로서 적절한 의치의 제작뿐 아니라,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의치관리법의 교육 및 홍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ORCID

Sunjai Kim <https://orcid.org/0000-0002-0828-8008>
 Kwantae Noh <https://orcid.org/0000-0003-3480-7737>
 Su-Jin Ahn <https://orcid.org/0000-0003-2128-1561>
 Jee-Hwan Kim <https://orcid.org/0000-0002-0872-4906>
 Kyoung-Rok Kim <https://orcid.org/0000-0002-1603-7559>
 Kung-Rock Kwon <https://orcid.org/0000-0002-9777-8980>

References

1.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2015-2045. Statistics Korea. 2017. Available at: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61108_6&rs=/assist/synap/preview
2.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 Gerontol* 1978;33:109-25.
3. Richmond S, Chestnutt I, Shennan J, Brown R. The relationship of medical and dental factors to perceived general and dental health.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7;35:89-97.
4. Gerritsen AE, Allen PF, Witter DJ, Bronkhorst EM, Creugers NH. Tooth loss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Qual Life Outcomes* 2010;8:126.
5. Locker D, Slade G.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oral health status in an older adult population. *Gerodontology* 1994;11:108-14.
6. Hur IG, Lee TY, Dong JK, Hong SH.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0;48:101-10.
7. Knapp A. Nutrition and oral health in the elderly. *Dent Clin North Am* 1989;33:109-25.
8. McGrath C, Bedi R.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to older people's quality of life. *Gerodontology* 1999;16:59-63.
9. Kim JB. Survey report on dental health of aged Koreans. *J Korean Dent Assoc* 1977;15:289-96.
10. Lee YH, Chun JH, Lee JH.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mprovements and satisfaction in South Korea: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nture Project for the Elderl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5;39:37-42.
11. The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Available at: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2&pdf_conv_yn=N&research_id=1351000-200900253
12. Analysis of poverty in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8. Available at: <http://institute.nps.or.kr/jsppage/app/common/download.jsp?subDir=/cms/system&seq=101145&ref=21503>
13.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lderly. *Health and Welfare Forum* 1999;29:17-29.
14. Han SY, Kim CS. Recognit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denture among the elderly at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J Korean Dent Assoc* 2012;50:407-19.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김선재¹ · 김성균² · 노관태³ · 안수진⁴ · 백상현⁵ · 김지환⁶ · 유동기⁷ · 김경록¹ · 권궁록^{3*}

¹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치과보철과, ²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³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⁴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생체재료 보철과, ⁵에스플란트치과병원, ⁶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⁷유동기 치과의원

목적: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용된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 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치성 구내염은 208명(41.6%)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6.2%(131명)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5.4%(327명)의 의치사용자가 잘못된 의치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의치사용자의 많은 수가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8;56:287-94)

주요단어: 의치사용자; 구강건강; 의치성구내염; 의치건강보험

*교신저자: 권궁록
02447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02 958 9340; e-mail, krkwon@khu.ac.kr
원고접수일: 2018년 10월 15일 / 원고최종수정일: 2018년 10월 17일 / 원고채택일: 2018년 10월 19일

© 2018 대한치과보철학회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3.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한치과보철학회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